

# 정당 득표율 전체 의석에 적용... 군소정당 약진 기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첫 적용

## 선거제 개혁안 합의 내용

현행 구성 유지

지역구 비례대표  
253 : 47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률 50% 적용
- 의석상한선(캡, 내년 총선 한시 적용) 30석
- 나머지 비례 17석은 기존 방식대로 배분
- 비례대표 할당 대상 정당 득표율 하한선 3%
- 석패율제·권역별 명부 백지화
- 지역구 인구 기준 선거일 전 15개월 인구 수
-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민주 지도부 봉하마을로 신년 첫 행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경자년(庚子年) 첫날인 1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민주당 영입 1호인 최혜영 교수와 2호인 원종건 시도 함께 했다. /연합뉴스

총 300석 중 지역구 의석수 뺀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 보장  
연동형 비례 상한선은 30석... 나머지 비례 17석은 기존대로  
지나치게 복잡한 비례 배분 수식 유권자 혼란 우려도

자유한국당이 17석을, 25.5%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13석을 각각 획득했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의 위력을 더 강화한다. 단순히 비례대표로 떼어놓은 몫에만 정당 득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석(300석)에 이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300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 계산한 뒤 이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한다.

가령, A 정당이 정당 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제외한 50석 중 절반, 즉 25석을 보장받게 된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선거결과에 따른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같은 산석에 따라 B 정당이 비례대표 10석을 배분받으면 두 당은 30석을 기준으로 '1(B정당)대 2.5(A정당)'의 비율로 할당 의석수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A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21석을, B 정당은 9석을 확보하는 계산이 나온다.

캡을 씌운 30석 외에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인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던 기존 방식(병립형)을 따른다.

이런 설계는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 성

과가 저조할 시 이를 보정하는 효과도 준다.

따라서 정의당 등 정당 지지도에 비해 지역 기반이 약한 소수정당들에 한층 유리한 제도로 평가된다.

다만 정당 창당과 후보 배출을 위해서는 현행법

의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한다.

정당 창당을 위해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질 것 ▲각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질 것 등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이 밖에도 지나치게 복잡한 비례대표 배분 수식 자체가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지역구 선거와 정당 투표에서 모두 선정한 당의 경우 되려 정당득표율 부분에서 '사표에 따른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개정안 통과로 총선 때 군소 정당이

난립하면서 정국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 전망도 있다.

이 개정안은 선거제도 면에서 큰 변화지만,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원안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원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 것이다. 여기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도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결혼 장려 '결혼미래당'... 핵무기 제조 '핵나라당'

정당 득표율 3% 넘기면 의석 배분... 이색 신당 우후죽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색 공약'을 내건 신당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당 득표율 3%를 넘기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받을 수 있어 군소 정당들이 국회 입성을 노리는 것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28년 전 결혼정보회사 선우를 설립한 이용진 대표는 대한민국의 낮은 결혼율과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결혼미래당' 창당을 위해 발기인 모집에 나섰다.

이 대표는 "결혼미래당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

를 낳지 않는 심각한 사회현상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미혼 및 결혼 세대의 유권자를 비롯해 여성과 청소년, 가정 문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현실 맞춤형 정당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 결혼 정보서비스 무료 제공, 3천만원 결혼장려금 지원, 소득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 지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 연장 국공립 어린이집 1천 곳 건설 등을 우선 과제로 정했다.

내년 1월 창당 발기인 모집을 마무리하고 2월께 중앙당 창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마친

다는 계획이다. 총선에서 360만표 이상을 얻어 비례대표 6석 이상을 얻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17대 대선에 나온 허경영 씨는 지난 9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등록하고 활동 중이다.

배당금당은 1년의 국가 예산에서 50%를 절약해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150만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고, 대통령이 5000만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챙김으로써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내용 등의 정책을 내걸고 있다.

이밖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핵무기를 제조하고 남북한 힘의 균등을 유지하겠다는 '핵나라당',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기본소득당' 등이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하고 활동 중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MODERN (트윈스틸)

###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이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히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